[UCI]I804:24011-200000237511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박 기 정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Elderly Preparation for Death and Anxiety of Death

2009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박 기 정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지도교수 정 영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박 기 정

박기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공 병 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인 숙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영 인

2008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iv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2

C. 용어정의 ····· 2

Ⅱ. 문헌고찰 ····· 3

A. 노인 ····· 3

B. 노인의 죽음 ····· 3

C. 죽음준비 ····· 4

D. 죽음불안 ····· 5

Ⅲ. 연구방법 ····· 7

A.연구설계 ····· 7

B. 연구대상 ····· 7

C.자료수집방법 ····· 7

D. 연구도구 ····· 7

1. 죽음준비도 측정도구 ····· 7

2. 죽음불안도 측정도구 ····· 8

E. 자료분석방법 ····· 8

Ⅳ. 연구결과 ····· 9

A.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9

B. 대상자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 ····· 11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 ····· 11
D.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 ····· 13
E.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 간의 상관관계 ····· 16
F. 죽음불안도의 영향요인분석 ····· 17

Ⅴ. 논의 ····· 17

Ⅵ. 결론 및 제언 ····· 19

참고문헌 ····· 21

부록 ····· 24

설문지 ····· 26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
표 2. 대상자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 ·····11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 차이분석 ·····11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 차이분석 ·····14
표 5.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의 상관관계 ·····16
표 6.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의 관계분석 ·····16
표 7. 죽음불안도의 영향요인분석 ·····17

ABSTRACT

Elderly Preparation for Death and Anxiety of Death

Park, kichung
Advisor: Chung, You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pru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preparation and anxiety for death of the elderly, and als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reparation and the anxiety for death and the infuencing factors of the level of anxiety for dea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200 aged persons who were 65 years or older, the members of 12 senior centers located in S cit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the direct interview using structuralized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bjects average point of the level of the preparation for death, were 3.02, and 3.12 the level of the anxiety for death.

2.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for the preparation level for death by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subjects,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ge((t=6.497, p=.001), schooling years(t=2.987, p=.020), health condition(t=3.894, p=.005), number of communication partner(t=2.695, p=.047), and the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t=3.241, p=0.013) was come out.

3.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for the level of anxiety for death by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subjects,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x(t=16.341, p=.001), and schooling years(t=4.756, p=.001) was come out.

4.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and the physical prepa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prove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r=0.356, p=.001) between the psychological preparation and the preparation level for death, proved also pretty high positive correlationship=0.757, p=.001). Between the physical preparation and the preparation level for death, also proved high level of positive correlation(r=0.880, p=.001).

In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anxiety and the preparation for death, the influence of the psychological preparation to the level of anxiety for death was β= -.0137(p=.019).

5.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anxiety for death by input of the significant variable in the difference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 in the anxiety level by the variabels, sex(β=0.273,p=.007), marriage state(β=-0.217,p= .014).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0년 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로 고령사회로 넘어가 2026년 2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통계청,2008), 의학의 발달과 환경개선으로 유아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유형에서 노화로 인한 사망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의 죽음이 2007년 총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68.6%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7).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 심신의 통증이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품위를 잃지 않고 인간다운 죽음을 갖는 것은 노인들의 희망이자 모든 인간의 바람이기도 하다(고양권, 2005).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의미는 문화와 연령, 건강, 종교, 인지적 능력, 개인의 생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같은 사람에게도 시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 들여지며 또한 같은 시기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 (최병현 2002,김형철 2005). 죽음은 단순히 죽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회적 사건이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죽음의 이해는 곧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킨다면 이것은 삶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배영기, 1993;이예종, 2005재인용).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당황스런 사건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Kuebler-Ross,1969)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특히 노년기는 인생과정에 있어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단계에 있다. 그러나 “삶의 과정으로써의 죽음”이 노년기만큼 일상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기는 없다(이예종,2005). 노인의 경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연령층보다 많으며, 심리적인 불안들이 바로 죽음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하나, 죽음은 거의 우리 모두에게 있어 관심과 의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임종신, 구인회 2003). 또한 우리사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이예종, 2005).

이에 본 연구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느끼는 죽음 준비도과 죽음 불안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죽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죽음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노인 간호 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죽음준비도과 죽음불안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죽음불안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C. 용어정의

1) 죽음준비도

죽음 준비란 물질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로 나뉘며 여기서 물질적 준비는 영정사진 준비, 수의준비, 매장, 화장등 장례유형을 말하고, 심리적 준비는 재산에 관한 문제, 유언장 준비, 죽음에 대한 수용, 죽음에 대한 가족과의 협의를 말 한다 (최영이,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죽음불안도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며(전영기, 2000), 본 연구에서는 박 은경(199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문헌고찰

A. 노인

노인의 정의를 제 2회 국제노년학회(1951년)에서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기관,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점진적으로 결손 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능력의 소모로 적응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고(박차상외, 2005), Breen(1976)은 노인을 생물학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권중돈, 2004).

이상을 종합하면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노화 과정에 있는 남녀로서 환경 적응 능력, 개인의 자유의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이은경, 200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B. 노인의 죽음

노인의 죽음은 아동, 청년, 성인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죽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나이에 따라 변한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사별, 퇴직, 신체기능 및 생산성의

저하, 죽음의 임박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 죽음이라는 특별한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된다(김유숙, 2006). 노년기는 죽음에 직면해 있는 시기로서 죽음의 의미를 직시함으로써 죽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죽음은 시간의 제약 또는 종말, 현세에서의 존재의 소멸, 무(無)의 상태가 되는 것, 죽음은 삶의 연장, 즉 또 다른 새로운 세계나 윤회나 환생, 영생, 죽음은 삶의 경험, 가족 등과 같은 소중한 것의 상실, 죽음은 형벌, 죽음은 힘든 삶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쉼, 죽음은 섬뜩한 저승사자 또는 부드러운 성령(gentle comforter), 죽음을 통하여 차별성이 극복되고 잘못된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며,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결합을 가져다주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국인들은 노년기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예종,2005 재인용).

노인들은 살아오는 동안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자주 접하면서 죽음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면,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면역성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태등, 2005;최영이, 2008재인용)

C. 죽음준비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현상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크게 다르다. 또한 죽음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오진탁, 2004).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죽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또는 ‘ 얼마나 잘 준비하였는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잘 죽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좋은 죽음(good death)' 또는 ’ 존엄사(dying with dignity)'로 개념화되어 있으며 좋은 죽음에 대한 신념은 개개인의 입장과 문화에 따라 다르고 맥락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미외, 2003, 이예종, 2005에서 재인용)

인간은 죽음을 위협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나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죽음은 인간의 생명 속에 존재하여 인간은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즉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므로 진실 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건전한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장옥화, 2004).

죽음 준비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 갈 삶

을 보다 의미 있게 변모시키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하면서 사는 방식을 수시로 되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의미만은 아닌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으려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잘 살아가기 때문이다(장옥화, 2004). 산다는 것은 죽음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람 있게 산다는 것은 보람 있게 죽는 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며 죽음의 의의는 곧 삶의 의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람이 일생을 산다는 의의는 죽음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문국진, 1993)

Kalish(1976)는 죽음에 관한 인식을 노인들에게 삶을 재조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며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노인들은 삶의 한정된 기간 속에 살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노인들은 그들 주위에서 죽음과 관련된 불안 갈등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말해 정신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서혜경, 1988) 또 Marshall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노년기의 중요 적응과제로 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음의 정당화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주장했고(조명옥,1997;오승철, 2008재인용)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단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죽음을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오승철, 2008)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깊이 인식하고 준비할 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보람있는 생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존재에의 불안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가능한 평안하고 의미있는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최재건,2005).

D. 죽음불안

죽음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보면, 이선영(2000)은 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연구에서 Stern(1968)은 죽음의 불안이란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대상상실 즉 어머니에 의해 버려진다는 공포가 되풀이 되는 두려움, Weisman(1962)은 자신의 가치 및 개인적인 의미의 소멸에 대한 불안, T.P.Hackett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불안 때문에 더욱 불안을 느낀다고 인용하였다. 더 나아가 죽음 불안 의 범위에 대해 말해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죽음에 대한 불안

(fear of death)은 '죽음에 대한 혐오(aversion of death),' '죽음에 대한 기피(death avoidance or reluctance),' '죽음의 수용(acceptance of death),' '죽음의 부정(denial of death), '죽음의 분노(anger of death),'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좁은 의미에서의 죽음불안은 존재의 정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서혜경, 1987; 임진욱, 2007재인용). Michael(1979)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써, 첫째,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사회로부터 격리, 소외,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 의식과 자제력의 상실, 타인에게 의존-버림받는데 대한공포이고 둘째, 존재 여부에 대한 공포로써 자아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에 대한 공포이고 셋째, 사후 결과에 대한 공포는 개인이 처리하지 못한 계획, 사업, 재산에 대한 염려, 아쉬움, 사후의 징벌, 사후 세계에 대한 미지의 공포 넷째, 타인의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임종을 지켜봐야한다는 사실이 공포를 야기 한다고 하였다(김현희,2006 재인용). Temper(1970)는 고립과 부동에 대한 공포, 동통에 대한 공포, 종말에 대한 공포, 장례와 부패에 대한 공포로 구분하였고(박은경, 1995; 박장수, 2007에서 재인용), Collett and Lester(1969)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의 임종 과정에 대한 공포, 타인의 임종과정에 공포를 죽음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Thorson and Powell(1972)은 사물의 부재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죽음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공포, 신체의 처치에 대한 염려, 무기력과 조절력 상실에 대한 공포, 후생에 대한 염려, 부패에 대한 공포, 수후 행해질 일에 관한 지시에 대한 염려로 죽음 불안을 설명하고 있다(정영,1994 재인용).

Kalish(1985)는 죽음공포와의 불안, 죽음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 회피, 죽음의 현실과 자신의 죽음 가능성, 임종하는 사람과의 관계 회피, 임종에 대한 강박적 사고, 통증에 대한 부정적 반응, 사후세계에 관한 걱정의 일곱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정영,1994,재인용). Kuebler-Ross(1969)는 "죽음이 삶의 일부분 이듯 죽음의 불안도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였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고 예외 없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죽음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이고 가장 위협적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날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죽음불안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오승철,2008).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를 확인하고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S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 녀 노인으로 본 연구자가 평소 방문 간호를 제공한 40개의 경로당중 노인의 평균적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12곳의 경로당을 임의로 선정하여 회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C. 자료수집방법

연구자와 본 연구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자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일대일 면담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1인당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10월28일까지였다.

D.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써, 인구사회학적 특성 12문항, 죽음 준비도 8문항, 죽음불안도 22문항으로 총 문항은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죽음준비 측정도구

죽음준비 측정도구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다’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α값은 0.70이었다.

2) 죽음불안 측정도구

죽음불안은 박 은경(1995)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질문지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α값은 0.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α값이 0.82였다.

E.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죽음준비도, 죽음불안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 죽음불안도와의 차이 검증은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A. 인구 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제시한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 75명(37.5) 여자 125명(62.5%) 이었고 연령은 70~75세 미만이 59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정도는 무학69명(34.5%), 초졸62명(31.0%)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77명(38.5%),좋지 않음64명(32%) 이고 생활수준은 보통144명(72.0%), 부유하지 않다36명(18%)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서는 7명이상69명(34.5%)이 가장 많았고 기혼상태는 동거96명(48%), 독거104명(52%)이였다. 대화상대로는 없다 61명(30.5%), 2~3명 59명(29.5%)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는 개신교67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신앙심은 보통77명(44.3%), 깊음39명(22.4%)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으로는 부부만78명(39.0%), 혼자52명(26.0%)으로 나타났고 보험유형으로는 건강보험178명(89.0%), 생활보호대상자는22명(11.0%)으로, 장례유형에서는 화장122명(61%), 매장78명(39%)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특성	내용	N	%
성별	남	75	37.5
	여	125	62.5
연령	70세 미만	44	22.0
	70세 이상-75세 미만	59	29.5
	75세 이상-80세 미만	45	22.5
	80세 이상	52	26.0
학력	무학	69	34.5
	초졸	62	31.0
	중졸	22	11.0
	고졸	37	18.5
	대학 이상	10	5.0
건강	매우 좋지 않음	4	2.0
	좋지 않음	64	32.0
	보통	77	38.5
	건강한편	43	21.5
	매우 건강함	12	6.0
생활수준	매우 가난하다	9	4.5

	가난하다	36	18.0
	보통	144	72.0
	부유하다	7	3.5
	매우 부유하다	4	2.0
자녀	2명 이하	6	3.0
	3명~4명	64	32.0
	5명~6명	61	30.5
	7명 이상	69	34.5
아들	없다	19	9.5
	1명	56	28.0
	2명	61	30.5
	3명 이상	64	32.0
딸	없다	32	16.0
	1명	103	51.5
	2명	48	24.0
	3명이상	17	8.5
기혼상태	동거	96	48.0
	독거	104	52.0
대화상대	없다	61	30.5
	1명	36	18.0
	2-3명	59	29.5
	4명 이상	44	22.0
종교	불교	59	29.5
	개신교	67	33.5
	천주교	22	11.0
	기타	15	7.5
	무교	37	18.5
신앙심	전혀 깊지 않음	9	5.2
	깊지 않음	22	12.6
	보통	77	44.3
	깊음	39	22.4
	매우 깊음	27	15.5
동거인	부부만	78	39.0
	미혼 자녀	9	4.5
	장남 가족	32	16.0
	독거	52	26.0
	장남외 가족	29	14.5
의료보험	건강 보험	178	89.0
	보호	22	11.0
장례유형	매장	78	39.0
	화장	122	61.0
	Total	200	100.0

B. 대상자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

대상자의 전체 죽음준비도의 평균점수는 3.02(± 0.68)점, 죽음불안도의 평균점수는 3.12(± 0.48)점 으로 나타났다.

<표2> 대상자의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

변수	M	SD
죽음준비도	3.02	0.68
죽음불안도	3.12	0.48

N= 200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 와 같다. 연령(t=6.497 p=0.000), 학력(t=2.987, p=0.020), 건강상태(t=3.894, p=0.005),대화상대(t=2.695, p=0.047), 동거상태(t=3.241, p=0.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죽음준비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무학이 죽음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함에서 죽음준비도가 높았고 대화상대는 없다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거상태에서는 독거, 장남외 가족과 살 때 죽음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 차이분석

변수		N	M ± SD	t/F	p	scheffe
성별	남	75	2.95 ± 0.61	1.480	0.225	
	여	125	3.07 ± 0.72			
연령	70세 미만 [a]	44	2.66 ± 0.46	6.497	0.000	a<b<c<d
	70세 이상-75세 미만 [b]	59	3.06 ± 0.69			
	75세 이상-80세 미만 [c]	45	3.08 ± 0.61			
	80세 이상 [d]	52	3.23 ± 0.78			

학력	무학	69	3.22 ± 0.69	2.987	0.020	
	초졸	62	2.86 ± 0.73			
	중졸	22	2.82 ± 0.52			
	고졸	37	3.00 ± 0.62			
	대학 이상	10	3.18 ± 0.46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4	2.56 ± 0.67	3.894	0.005	
	좋지 않음	64	3.20 ± 0.63			
	보통	77	2.92 ± 0.67			
	건강한편	43	2.86 ± 0.67			
	매우 건강함	12	3.42 ± 0.75			
생활수준	매우 가난하다	9	2.99 ± 0.71	1.259	0.288	
	가난하다	36	3.22 ± 0.78			
	보통	144	2.96 ± 0.65			
	부유하다	7	3.13 ± 0.80			
	매우 부유하다	4	3.31 ± 0.46			
아들	없다	6	3.27 ± 1.18	0.581	0.628	
	1명	64	3.01 ± 0.65			
	2명	61	2.95 ± 0.63			
	3명 이상	69	3.07 ± 0.70			
딸	없다	19	2.99 ± 0.69	0.398	0.755	
	1명	56	3.10 ± 0.73			
	2명	61	2.99 ± 0.68			
	3명 이상	64	2.99 ± 0.64			
자녀	2명 이하	32	3.05 ± 0.86	0.406	0.749	
	3명~4명	103	2.97 ± 0.60			
	5명~6명	48	3.06 ± 0.71			
	7명 이상	17	3.13 ± 0.73			
결혼상태	동거	96	2.96 ± 0.62	1.543	0.216	
	독거	104	3.08 ± 0.73			
대화상대	없다[a]	61	3.20 ± 0.69	2.695	0.047	a>b,c
	1명 정도[b]	36	2.87 ± 0.54			
	2-3명[c]	59	2.90 ± 0.66			
	4명 이상[d]	44	3.06 ± 0.75			

종교	불교	59	3.00 ± 0.67	1.684	0.155	
	개신교	67	3.15 ± 0.74			
	천주교	22	3.10 ± 0.72			
	기타	15	2.92 ± 0.63			
	무교	37	2.81 ± 0.54			
신앙심	전혀 깊지 않음	9	2.78 ± 0.54	0.705	0.590	
	깊지 않음	22	3.13 ± 0.79			
	보통	77	3.01 ± 0.68			
	깊음	39	3.01 ± 0.71			
	매우 깊음	27	3.17 ± 0.67			
동거상태	부부만[a]	78	2.93 ± 0.60	3.241	0.013	b<d
	미혼자녀[b]	9	2.39 ± 0.56			
	장남가족[c]	32	3.09 ± 0.61			
	독거[d]	52	3.15 ± 0.70			
	장남외가족[e]	29	3.16 ± 0.84			
의료혜택	건강보험	178	3.03 ± 0.67	0.318	0.573	
	보호	22	2.94 ± 0.77			
	죽음준비도	**200**	**3.02 ± 0.68**			

D.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 와 같다. 성별(t=16.341, p=0.000), 학력(t=4.756,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았고, 학력에서는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았다.

<표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 차이분석

변수		N	M ±SD	t/F	p	scheffe
성별	남	75	2.95 ±0.46	16.341	0.000	
	여	125	3.22 ±0.46			
연령	70세 미만	44	3.08 ±0.49	0.404	0.750	
	70세 이상-75세 미만	59	3.15 ±0.51			
	75세 이상-80세 미만	45	3.16 ±0.51			
	80세 이상	52	3.08 ±0.41			
학력	무학[a]	69	3.18 ±0.42	4.756	0.001	b>d
	초졸[b]	62	3.26 ±0.50			
	중졸[c]	22	3.04 ±0.49			
	고졸[d]	37	2.92 ±0.46			
	대학 이상[e]	10	2.80 ±0.41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4	3.36 ±0.37	0.845	0.498	
	좋지 않음	64	3.16 ±0.42			
	보통	77	3.05 ±0.48			
	건강한편	43	3.17 ±0.49			
	매우 건강함	12	3.12 ±0.72			
생활수준	전혀 부유치 않다	9	3.16 ±0.53	0.070	0.991	
	부유치 않다	36	3.10 ±0.52			
	보통	144	3.13 ±0.46			
	부유하다	7	3.10 ±0.71			
	매우 부유하다	4	3.05 ±0.41			
아들	없다	6	3.08 ±0.57	0.219	0.883	
	1명	64	3.12 ±0.51			
	2명	61	3.09 ±0.47			
	3명 이상	69	3.16 ±0.45			
딸	없다	19	3.00 ±0.48	0.952	0.416	
	1명	56	3.09 ±0.57			
	2명	61	3.11 ±0.45			
	3명 이상	64	3.19 ±0.42			
자녀	2명 이하	32	3.09 ±0.60	1.867	0.136	

	3명~4명	103	3.07 ±0.50		
	5명~6명	48	3.17 ±0.36		
	7명 이상	17	3.35 ±0.34		
결혼상태	동거	96	3.11 ±0.54	0.071	0.790
	독거	104	3.13 ±0.42		
대화상대	없다	61	3.16 ±0.39	0.327	0.806
	1명 정도	36	3.09 ±0.50		
	2-3명	59	3.14 ±0.51		
	4명 이상	44	3.08 ±0.54		
종교	불교	59	3.20 ±0.52	0.610	0.656
	개신교	67	3.10 ±0.50		
	천주교	22	3.04 ±0.46		
	기타	15	3.13 ±0.43		
	무교	37	3.09 ±0.40		
신앙심	전혀 깊지 않음	9	3.13 ±0.48	0.363	0.835
	깊지 않음	22	3.15 ±0.45		
	보통	77	3.09 ±0.49		
	깊음	39	3.10 ±0.51		
	매우 깊음	27	3.22 ±0.50		
동거상태	부부만	78	3.10 ±0.54	1.003	0.407
	미혼 자녀	9	3.26 ±0.33		
	장남 가족	32	3.18 ±0.38		
	독거	52	3.17 ±0.47		
	장남외 가족	29	3.00 ±0.47		
의료혜택	건강보험	178	3.14 ±0.49	1.234	0.268
	보호	22	3.01 ±0.42		
	죽음불안도	**200**	**3.12 ±0.48**		

E. 죽음준비도과 죽음불안의 상관관계

죽음준비도과 죽음불안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 과 같다. 죽음 준비도와 죽음 불안도와 관계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죽음 준비 중 심리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 간에는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0.356, p=0.000), 심리적 준비와 죽음준비도 간에도 높은 정도의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57, p=0.000). 물질적 준비와 죽음준비도 에서는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880, p=0.000).

<표5>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의 상관관계

변수	심리적 준비	물질적 준비	죽음 준비	죽음 불안
심리적 준비	1			
물질적 준비	0.356(.000)	1		
죽음 준비	0.757(.000)	0.880(.000)	1	
죽음 불안	-0.137	0.052(.465)	-0.034(.637)	1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와의 관계분석

죽음에 대한 준비에서 심리적 준비에 따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달라진 결과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물질적 준비는 불안감과 관계가 없었고 심리적 준비와 죽음불안이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준비가 죽음불안도에 미치는 영향력 β계수 -.0137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6>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의 관계분석

변수	B	SE	R-square	β	t	p
심리적준비	-.124	.052	.019	-.137	-2.373	.019
물질적준비	.058	.038	.012	.115	1.537	.126

F. 죽음불안도의 영향요인 분석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결혼 상태에 따라 불안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결혼 상태는 남성은 0, 여성은 1로 두었으며, 결혼 상태 에서는 부부간 동거=0, 사별 등은 1로 Dummy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여성이 불안도가 컸고(β=0.273) 결혼 상태에서 사별한 노인이 불안도가 낮았다(β=-.0217).

<표7>죽음불안도의 영향요인 분석

변수	B	SE	R-square	β	t	p
성별	0.276	0.100	.091	0.273	2.754	0.007
결혼상태	-0.211	0.085	.018	-0.217	-2.493	0.014
학력	-0.070	0.039	.019	-0.182	-1.790	0.075
심리적준비	-0.081	0.049	.014	-0.119	-1.636	0.104

Ⅴ. 논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준비정도와 죽음불안도를 확인하고 죽음준비와 죽음불안과의 관계 및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죽음준비도는 5점 만점에 3.0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준비에 대해서 절반이상이 준비를 못하였다는 김영규(1999)의 연구보다 높은 것이었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가 32%라는 전영기(2000)의 연구보다 높은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응답이 3.77점으로서 79.5%라는 안경아(2002)의 연구보다 낮은 편이었고, 40%로 나온 이예종(2005)의 연구보다는 높았다. 대상자의 죽음불안도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7%로 나온 이예종의 연구,80점 만점에 53.49점의 손지영의 연구와 비교적 유사하였고, 64점 만점에 37.24점의 이선영(2000)연구, 43.8점의 장인순외(2002)의 연구보다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t=6.497 p=0.000),

학력(t=2.987, p=0.020), 건강상태(t=3.894, p=0.005),대화상대(t=2.695, p=0.047), 동거상태(t=3.241, p=0.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80세 이상 3.23점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았으며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75세 미만 집단이 75세 이상 집단보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았다. 학력에서는 무학 3.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함 3.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화상대에서는 없다 3.20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사후검증 결과 없다고 대답한 그룹이 1명-3명 그룹 보다 죽음준비도가 높았다. 동거상태에서는 장남 외 가족 3.16점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남외의 가족그룹이 미혼자녀 그룹보다 죽음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대화상대, 동거상태, 학력,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왔으나 학력, 건강상태에서는 각각 내부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의 죽음준비에 대한 분석은 연구 문헌이 부족하여 직접 비교 논의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 영기(2000)의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 정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45%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3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고, 죽음에 대한 준비정도는 본 연구와 성별에서는 일치하였으나 연령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 보면, 평균점수가 여자노인이 3.22점으로 남자노인의 2.95점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았다.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는 전영기(2000),이예종(2005) 김유숙(2006) 이병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장인순 외(2002)의 연구에서는 남, 녀 간에 죽음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았다. 전영기(2000)는 여성이 죽음에 대한 불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남녀차별이 극심한 시절을 지내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력에서는 초졸이 3.26 으로 대학이상 2.80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졸과 고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력이 낮은 그룹에서 죽음불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선영(2000),전영기(2000), 장이순외(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이예종(2005)연구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았다. 장인순 외(2002)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전영기(2000)는 현재 노인계층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온 계층이므로 자아통합성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도과 죽음준비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죽음 준비 중 심리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심리적 준비와 죽음준비도 간에도 높은 정도의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준비와 죽음준비도 에서도 높은 정도의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적인 준비는 심리적 준비와 비례하고 심리적 준비는 죽음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죽음불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인 이 예종(2005)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죽음불안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결혼 상태에 따라 불안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한 노인일수록 불안감이 낮아졌고 여성일수록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의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손지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죽음에 불안도가 높게 나온 이예종(2005)의 연구와는 유사하였다.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이고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죽음에 문제가 터부시되고 기피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최영이, 2008).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준비정도와 죽음불안도를 확인하고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도와의 관계 및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년기의 죽음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S시에 거주하는 12개 경로당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평점은 죽음준비도 3.02점, 죽음불안도3.12이었다.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도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연령(t=6.497, p=0.001), 학력(t=2.987, p=0.020), 건강상태(t=3.894, p=0.005), 대화상대(t=2.695, p=0.047), 동거상태(t=3.241, p=0.013)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도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성별(t=16.341, p=0.001), 학력(t=4.756, p=0.001)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죽음 준비 중 심리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 간에는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0.356, p=0.001), 심리적 준비와 죽음 준비도 간에도 높은 정도의 정상관관계가 있었고(r=0.757, p=0.001), 물질적 준비와 죽음준비도간에 정상관관계가 있었다(r=0.880, p=0.001). 죽음불안과 죽음준비와의 회귀분석에서 심리적 준비는 죽음불안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β= -.0137, p=0.019)로 파악되었다.
5.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죽음불안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β=0.273,p=0.007), 결혼 상태(β=-0.217, p= 0.014)에 따라 불안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여자노인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죽음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고, 죽음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죽음불안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참고문헌

고승덕, 김은주, 김영규(1999). 노인의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의 불안도에 미치는 요인분석연구. 보건교육건간증진학회지, 16(2), 81-82.

고양곤(2005). 노인복지측면에서의 죽음과 죽어감. 한국죽음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 자료집, 57-69.

구인회(2005). 생명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아카넷, 11-45.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313-318.

권영숙, 김정남(2003), 노인의 영적 안녕과 죽음 불안간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1)132-143.

김명희(20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규(1999). 농촌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숙(2006), 노인성별에 따른 죽음준비교육 요구 차이에 관한 연구(노인성별에 따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281-295.

김혜련(1991).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 - 유료 및 무료 시설과 재가노인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희(2006), 노인의 생의 의미와 죽음불안, 부산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형철, 최길순, 정영(2005), 죽음 준비교육이 일 노인복지관 노인들의 죽음불안, 태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의대논문집, 제30권 3호, 75-84.

노유자 외(1997).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166-185.

대한간호협회(2003), 호스피스 간호, 보수교육교재,17-18.

문국진(1993), 의료인간학, 청림,84-100.

박은경(1996). 죽음 불안 측정 도구개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장수(2007), 노인의 죽음 불안감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차상, 김옥희,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배창진,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15-23.

배영기(1993).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송미순,김은심,박오장,서순림,신재신,정승희(1999),가정간호사를 위한 노인간호학 현문사, 11-71.
손지영(2006), 배우자 사별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안경아(2001). 농촌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준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진탁(2004).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청림출판.
오승철(2008). 노인주거복지시설거주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희옥(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동명(1997). 형법상 사람의 생명과 죽음. 호남대학교 논문집, 13(3), 409-430.
이승민(2007). 가족요인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옥,하양숙,이경자,조남옥공저(2003) 노인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305-311.
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박인전, 손지미, 김영랸, 홍계옥, 도미향, 김민정(2004),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477-479.
이은경(2002).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내외통제성 및 대처방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예종(2005), 노인의 죽음준비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연구(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2008),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선영(2000), 재가 노인의 자아 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연구, 공주문화대학 논문집, 제27호, 285-298.
임진욱(2007), 죽음준비 상담교육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종신, 구인회(2003),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141-147.
임현정(2001). 노인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 자아통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옥화(2004), 노인의 죽음에 관한 연구(죽음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인순, 김수미(2002),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4(1)80~92.

장인협 · 최성재(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521-535.

전영기(2000).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조계화, 성기월(1997). 노인의 임종과 죽음(Dying and Death)에 관한 문헌 고찰, 성인 간호 학회지 제9권 제3호 378-389, 대구효성카톨릭 대학교.

최영희, 신경림, 고성희, 공수자, 공은숙, 김명애, 김미영, 김순이, 김옥수, 이영희, 조명옥, 하헤정, 한수정, 노인과 건강, 현문사, 3-5, 294-300.

최영이(2008), 노인의 죽음인식 및 죽음준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http://www.nso.go.kr.

홍숙자(1999).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345-351.

Deeken, A.(1986). 오진탁 역(2003).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서울: 궁리출판.

Kuebler-Ross(1969)저, 성염 역(2000). On Death and Dying. 인간의 죽음. 서울: 분도출판사.

Nulamd, S. B.(1993). 명희진 역(2003).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서울: 세종서적, 344-382.

부록

<부표1> 죽음준비도

문 항	Mean	Std.D
1.죽음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77	0.95
2.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미리 가족들과 의논해 두셨습니까?	2.53	1.09
3.재산에 관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2.44	1.18
4.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1.83	0.82
5.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3.04	1.51
6.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3.70	1.39
7.매장, 화장 등 장례유형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셨습니까?	3.50	1.36
8.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십니까?	3.39	1.13
죽음준비도	3.02	.68

N = 200

<부표2> 장례유형

장례유형	빈도	%	유효%
매장	78	39.0	40.2
화장_뿌리는장례	42	21.0	21.6
화장 후 납골당	23	11.5	11.9
화장 후 매장	24	12.0	12.4
시신기증	5	2.5	2.6
수목장	13	6.5	6.7
기타	9	4.5	4.6
응답자수	194	97.0	100
System	6	3.0	
Total	200	100.0	

<부표3> 죽음불안도

문항	Mean	Std.D
1. 화장은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2.71	1.13
2. 매장은 어둠 컴컴한 곳에 갇히는 느낌이어서 싫다.	2.48	0.92
3. 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 슬프다.	2.35	0.87
4. 죽은 후 내 육체가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옮기고 묻거나 재로 뿌려지기까지 과정이 끔직하다.	2.71	0.99
5. 죽기 직전에 숨이 막히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	3.37	1.09
6. 죽을 때 고통이 따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3.51	1.13
7. 이승에서 잘못된 업보가 내세에서 나타날까봐 죽음을 잘 정리하고 맞고 싶다.	3.37	0.99
8.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두렵다.	3.14	1.12
9.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나 혼자 떠난 다는 것이 꺼림 칙 하다.	3.06	1.14
10.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	2.99	1.11
11. 제때 못 죽고 남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4.05	0.83
12. 제 때 못 죽을 경우 자식이 먼저 죽을까 두렵다	4.20	0.96
13. 내가 책임질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두렵다.	2.82	1.08
14.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정을 보는 것이 두렵다.	3.00	1.05
15. 사후세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	2.62	1.06
16. 죽음의 고통보다는 지하의 어둠속에 갇힌다는 것이 무섭다.	2.62	0.99
17. 죽음에 임박해서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이 두렵다.	3.29	1.09
18. 이승에서 내가 해왔던 것이 없어지므로 죽음이 두렵다.	2.69	1.00
19. 만일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즉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3.82	1.02
20. 죽음과정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것도 두렵다.	3.83	1.02
21.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잊혀 진다는 게 두렵다	2.98	1.00
죽음불안도	**3.12**	**.48**

N = 200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
건강은 어떠신지요?
본 설문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느끼시고 마음에 지니고 계신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및 준비하심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연구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설문내용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노인 전문 간호사 과정
박 기 정

<죽음 준비도>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 죽음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미리 가족들과 의논해 두셨습니까?					
3. 재산에 관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4.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5.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6.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7. 매장, 화장 등 장례유형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셨습니까?					
8. 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십니까?					

7-1 장례유형을 결정하셨다면 다음 방법 중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① 매장 ( )
② 화장 - 뿌리는 장례식 ( )
③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
④ 화장 후 매장 ( )
⑤ 시신기증 ( )
⑥ 수목장 ( )
⑦ 기타 ( )

<죽음불안>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 화장은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2. 매장은 어두컴컴한 곳에 갇히는 느낌이어서 싫다.					
3. 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 슬프다.					
4. 죽은 후 내 육체가 주변사람들(주로 가족들)에게 보여 지고 그것을 옮기고 묻거나 재로 뿌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끔직하다.					
5. 죽기 직전 숨이 막히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					
6. 죽을 때 고통이 따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7. 이승에서 잘못된 업보가 내세에서 나타날까봐 죽음을 잘 정리하고 맞고 싶다.					
8.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두렵다.					
9.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나 혼자 떠난다는 것이 꺼림칙하다.					
10.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을 마무리짓지 못한채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					
11. 제때 못 죽고 남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12. 제 때 못 죽을 경우 자식이 먼저 죽을까 두렵다					
13. 내가 책임질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두렵다.					
14.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정을 보는 것이 두렵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5. 사후세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					
16. 죽음의 고통보다는 지하의 어둠속에 갇힌다는 것이 무섭다.					
17. 죽음에 임박해서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이 두렵다.					
18. 이승에서 내가 해왔던 것이 없어지므로 죽음이 두렵다.					
19. 만일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즉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20. 죽음과정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것도 두렵다.					
21. 병원은 너무 살벌하므로 임종의 장소는 집이 좋다.					
22.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잊혀 진다는 게 두렵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1. 할아버지(할머니)의 성별은?

①남 ( ) ②여 ( )

2. 어디에 사십니까? ____시 ____구(군) ____동(면)

3.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만 ____세

4.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 ) ② 서당 ( )
③ 초등학교 ( ) ④ 중학교 ( )
⑤ 고등학교 ( ) ⑥ 대학교 이상 ( )

5.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 ) ② 건강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좋지 않다 ( )
⑤ 매우 좋지 않다 ( )

6. 사시는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부유하다 ( ) ② 부유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부유하지 않다 ( )
⑤ 매우 부유하지 않다 ( )

7. 자녀 수

① 있다 (아들 :____명 / 딸 :____명)
② 없다 ( )

8. 결혼 상태

① 기혼 -
ㄱ. 현재 함께 살고 있다 ( )
ㄴ. 사별하여 독신이다 ( )

ㄷ. 기타 ( )

② 미혼 - ( )

9.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 ) ② 1명 정도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이상 ( )

10. 종교

① 불교 ( ) ② 개신교 ( )

③ 기타 ( ) ④ 유교 ( )

⑤ 천주교 ( ) ⑥ 없다 ( )

11. 신앙심의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깊다 ( ) ② 깊은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깊지 않다 ( )

⑤ 매우 깊지 않다 ( )

12. 누구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까?

① 부부만 ( ) ② 미혼자녀 ( )

③ 기타(시설) ( ) ④ 장남 가족 ( )

⑤ 장녀 가족 ( ) ⑥ 혼자서 ( )

⑦ 장남 外 가족 ( ) ⑧자녀 가족 ( )

⑨ 친척이나 친구 ( )

13. 의료보험의 종류는?

① 국민건강보험 ( ) ② 보호 1종 ( )

③ 보호 2종 ( ) ④ 기타 (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간호학과	학 번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박 기정 한문 영문 :Park, Kichung				
주 소	전남 순천시 매곡동 130번지				
연락처	(061) 759-9114				
논문제목	한글 :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영문: Elderly Preparation for Death and Anxiety of Death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조건부 동의( ) 반대( )

2009년 2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